심리학과 신설·박사과정 운영 등… AI 기반 미래교육 박차

2025 사이버대 가이드

서울사이버대학교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학습이 가능한 사이버대학이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으면서, 서울사이버대학교(총장 이은주)를 선택하는 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서울사이버대학은 최근 5년간 사이버대학 신입생수 1위를 기록(2020~2024 대학알리미), 변화하는 미래 교육 선두두자로 입지를 굳혔다.

서울사이버대학은 교육부 공식 인증평가에서 3회 모두 A등급을 획득했고(2007, 2013, 2020), 2회 연속 교육부 원격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며 국내 최초의 사이버대학이다.

◆ 2025 학과(전공) 신설 및 개편…사이버대학 최초 심리학과 개설

서울사이버대학은 2025학년도 학과(전공) 신설 및 개편을 통해 사회적 수요와 트렌드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웰니스건강대학과 마이크로디그리대학을 신설했고, 신설학과(전공)로는 심리학과, 요가명상학과, 자유전공이 있다. 한국어교육학과와 회화과, 통합건강관리학과는 확대 개편했다.

특히, 서울사이버대학 심리학과는 4년제 사이버대학 최초로 신설됐다. 인간의 성장과 심리적 웰빙을 지원하는 심리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다. 기존 발달심리학, 조직심리학, 인지심리학, 임상심리학, 상담심리학, 코칭심리학 분야 등을 아우르는 동시에 ▲심리학의 최신 트렌드인 마음챙김 ▲초고령화 대비 시니어 상담 ▲조직 및 기업 웰빙을 위한 조직과웰빙 등 세 가지가 추가된다.

관련 자격증으로는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직업상담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이상 국가자격증), 상담심리사, 발달심리사, 건강심리사, 인사조직심리사, 코칭상담사(이상 학회자격증), 마음챙김명상과 심리치료, 시니어상담, 조직 및 기업 상담(이상 마이크로디그리 인증 예정) 등이 있다. 또한 졸업 후에는 일반 기업체 인사 분야, 교육기관 및 심리학 분야 연구소, 심리상담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노인상담센터, 기업상담, 여론조사기관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요가명상학과는 신설된 웰니스건강대학 산하 학과로, 심신 통합적 건강과 웰니스를 지도하는 요가·명상 지도 및 치료 전문가를 양성한다. 요가수련지도, 요가치료, 명상수련지도 트랙으로 구분돼, 학생들은 관련 자격증 취득을 통해 전문가로 활동하게 된다. 특히, 졸업 후 요가명상지도자, 산림치유지도사, 헬스케어 기관 및 센터, 연구 및 교육 분야, 커뮤니티 프로그램 및 비영리 단체 등으로 진로 선택이 가능하다. 관련 자격증으로 산림치유지도사(국가자격증), 에너지명상코치, 마음챙김명상코치, 요가실습코치, 요가치료사(이상 마이크로디그리 인증서 예정) 등이 있다.

서울사이버대는 다양한 학문을 경험하고 자신만의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 자유전공을 개설했다. 맞춤형 진로설계와 다양한 학과 및 전공체험으로 탄탄한 기초핵심역량 강화할 수 있다. 다양한 학과 및 전공 체험을 위한 11개 마이크로디그리 추천 과목 이수, 구체적 커리어 디자인을 위한 진로교과 이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로진단 및 진로상담,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유수 대학과의 연계, 학과가 개최하는 국제컨퍼런스 참여, 창의융합과정 하브루타 상담사 및 지도사 과정 자격증 취득 등이 가능하다.

◆ AI 교육혁명시대 준비…혁신적인 에듀테크 솔루션

서울사이버대학은 AI휴먼이 만드는 혁신적인 강의 환경을 위해 2025년부터 TTS(Text-to-Speech) 기반의 AI 휴먼을 활용한 강의 콘텐츠를 제작, 교수 8명의 외모, 말투, 행동을 학습한 AI 휴먼이 인간처럼 자연스러운 목소리와 표정으로 교수자의 컨디션과 상황에 관계없는 안정적인 강의를 유지한다.

서울사이버대학이 자체 개발한 AI챗봇과 AI학습튜터는 미래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에듀테크(EdTech) 솔루션으로 사이버대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며,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 교육부 박사과정 승인…일반대학원 석사·박사과정 운영

서울사이버대학은 교육부로부터 박사과정을 승인, 기존 특수대학원을 통합해 일반대학원으로 전환하면서 2025학년도부터 박사과정을 운영한다.

서울사이버대는 사이버대학 최초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샌버나디노(CSUSB)와 온라인 복수학위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사이버대 융합경영대학에서 2년, CSUSB에서 2년을 공부해 양교의 학위를 취득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CSUSB의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돼 직장인 및 성인 학습자들이 국내 학위와 해외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온라인 복수학위' 취득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2025년 1월 14일까지 총 13개 단과대학, 46개 학과(전공) 사이버대 최다 모집학과(전공)에서 2025학년도 상반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신입학은 고졸 학력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편입학은 학년별 학력자격만 충족하면 된다. 서울사이버대 입학홈페이지에 접속해 PC나 모바일을 통해 쉽게 지원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사이버대학교 캠퍼스 전경.

4년제 사이버대 중 첫 '심리학과'
TTS 기반 AI 휴먼 활용 강의 제작
AI챗봇·학습튜터로 잠재력 발휘
美 CSUSB와 온라인 복수학위 협약
내달 14일까지 신·편입생 모집

수능 국어 만점자 16.5배 ↑… 변별력 낮아

〈전년比〉

만점 수험생 11명… 전년比 10명 늘어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쉬웠다 평가
최상위권 정시 경쟁 치열할 전망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와 수학, 영어영역 모두 '불수능'으로 평가된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만점을 받은 수험생은 11명으로, 지난해(1명)보다 10명 증가했다. 의과대학 증원에 따라 최상위권 재학생은 물론 재수생 등이 수능에 대거 몰린 가운데, 입시계는 최상위권을 변별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분석한다.

교육부와 수능 출제기관인 학국교육과정평가원이 5일 발표한 '2025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에 따르면, 올해 수능 표준점수 최고점은 국어 139점과 수학 140점으로, 지난해 수능과 견줘 국어와 수학이 각각 11점, 8점 낮아졌다. 표준점수는 시험 난도가 낮아 학생들 전체 평균이 높아지면 높아진다.

국어영역은 응시생 1055명이 모든 문제를 맞혔다. 지난해(64명)보다 16.5배 늘었다.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지난해 150점에서 139점으로 11점 하락해 변별력이 크게 낮아졌다.

수학영역을 모두 맞힌 응시생은 1522명으로, 지난해(612명)보다 2.5배 늘었다. 수학 만점자는 ▲2022학년도 2702명 ▲2023학년도 934명 ▲2024학년도 612명으로 감소하다가 올해 1000명을 넘어섰다.

2025학년도 수능 등급별 점수

국어 영역

등급	등급 구분 표준 점수	인원(명)	비율(%)
1	131	2만150	4.37
2	125	3만2740	7.10
3	117	5만7162	12.39
4	107	8만470	17.45
5	96	8만8252	19.13
6	84	7만7796	16.87
7	72	5만6519	12.25
8	63	3만2902	7.13
9	63미만	1만5261	3.31

수학 영역

등급	등급 구분 표준 점수	인원(명)	비율(%)
1	131	1만8199	4.11
2	123	3만2881	7.42
3	117	5만6977	12.85
4	110	7만8413	17.69
5	96	7만9753	17.99
6	78	7만9117	17.85
7	72	5만6793	12.81
8	69	2만6051	5.88
9	69미만	1만5049	3.40

영어 영역

등급	등급 구분 원점수	인원(명)	비율(%)
1	90	2만8587	6.22
2	80	7만5100	16.35
3	70	9만8149	21.37
4	60	9만9320	21.62
5	50	6만9897	15.22
6	40	4만1611	9.06
7	30	2만4969	5.44
8	20	1만7212	3.75
9	20미만	4507	0.98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뉴시스 그래픽

수학 만점자 대부분은 '미적분' 응시생으로 추정된다. '확률과 통계' 등 타 과목은 만점을 맞았어도 조정 표준점수 계산 방식 때문에 표준점수가 낮을 수 있다.

1등급 구분 표준점수는 국어·수학 모두 131점으로, 지난해보다 모두 2점씩 각각 떨어졌다. 지난해보다는 시험이 쉬웠단 의미다.

영어 영역은 2만8587명이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받아 1등급 성적표를 받는다. 1등급을 받은 수험생은 전체 응시생 대비 중 6.22%에 해당한다. 영어는 절대평가로, 성적표에 등급만 통지된다.

영어는 지난 2018년 절대평가 도입 이후 지난해 1등급 비율이 4.71%에 그쳐 가장 어려웠다고 평가되며, 2021학년도엔 12.66%를 기록하며 가장 쉬웠다. 올해는 그 중간 수준이다.

사회탐구 9과목 중 6과목의 최고 표준점수가 지난해보다 올라 다소 까다로웠던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높은 선택과목은 77점을 기록한 생활과윤리로, 지난해보다 12점 높아졌다.

반면 과학탐구는 다소 평이했다. 과학탐구 8개 선택과목 중 5개 최고 표준점수가 지난해보다 낮아졌다. 단, 지구과학 I 과 생명과학이 각각 68점에서 72점으로, 69점에서 70점으로 각 4점 높아졌다.

올해 응시자는 46만3486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지원자 52만2670명 중 12.8%에 해당하는 5만9184명이 결시했다.

입시계는 올해 수능의 변별력이 낮아져 최상위권의 정시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상위권에서 점수분포가 지난해보다 밀집되어진 상황으로 상위권에서 치열한 눈치작전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특히 영어는 의대, 서울권 주요대학에서는 변별력이 사실상 없다"고 진단했다. /이현진 기자

포항시, 푸드테크 산업도시로 도약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에 155억 투입

포항시는 푸드테크 산업 육성으로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푸드테크는 기후 위기와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할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포항은 이 분야에서 세계적 허브로 자리잡기 위해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설립, 대체식품 생태계 조성, 푸드테크 배움터 운영, 블루푸드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식품 로봇 분야에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선정되면서 푸드테크산업 도시로서의 포항만의 혁신적 성과를 가시화했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흥해읍 일원에 총사업비 155억 원 규모로 건립된다.

센터는 데이터 분석, 실증 테스트, 글로벌 인증 지원 등 식품 로봇 관련 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연구와 상용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아, 식품로봇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식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외식업 인력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포항(경북)=최지웅 기자 asdadx@

서울시, 해외투자 유치 우수기업 4곳 선정

'코어 100 어워드'서 페이히어 등 시상

서울시는 지난 4일 강남 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에서 '코어 100 인사이트 데이(CORE 100 Insight Day)' 행사를 열고 해외 투자 유치 우수 기업 4개사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5일 밝혔다.

해외 투자 유치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기업에 상을 주는 '코어 100 어워드'에서 포스(POS) 솔루션 스타트업 '페이히어'(핀테크)가 대상을, 인공지능 디지털 치과 전문기업 '이마고웍스'(바이오)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우수상은 아동 오디오 스타트업 '코코지'(교육)와 대안신용평가 전문 기업 '크레파스솔루션'(핀테크) 등 2개사가 받았다.

시는 이들 수상 기업에 해외 박람회 및 기업 설명회 참가 기회, 마케팅 자료 제작 등 해외 투자 유치 활동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 유망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금융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투자 유치 지원 등 정책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